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관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주님 안에서 하나되는 제82회 교단 총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9월 23-26일, 우리 교회에서 열려
9월 24일(수)-26일(금) 새벽기도회와 24일 수요일 2부예배는 본당에서
24일 수요일 1부 예배는 갈릴리홀에서

이번 23일 오후 2시, 우리교회에서 제82회 교단총회가 열린다. 총회가 우리교회에서 열리는 것은 지난 80회 총회 이후 2년만의 일이다. 총회는 교단산하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바른 신앙의 기초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따라가도록 여러 의제와 현의안들을 처리하고 정돈하기 위한 교단 최대의 모임으로 매년 9월경에 회집된다. 우리 교단에는 1996년도 기준으로 81개 노회에 5,892개의 교회가 있으며, 여기에서 6,844명의 목사와 2,171,856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들 중 이번 총회에 참석하는 목사와 장로는 각각 425명씩 총 850명이다. 따라서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이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행하기 위해서는 온 성도들의 기도가 그 어느때보다 간절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건간에 그동안 총회에 대한 대다수 개교회의 관심과

기도는 매우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우리 온 성도들은 이번 82회 총회가 우리교회에서 열리는 것을 계기로 하여, 이번 총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가시는 총회가 되어서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바른 교리와 말씀 위에 서서 그리스도의 몸을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이번 총회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의제들 중 온 성도들이 참고로 할 만한 것들은 포도원교회, 안석교, 다락방 등과 관련한 이단문제 및 최근 기성교회 교인들을 잠식해 가고 있는 사이비집단 안상홍증인회에 관한 연구제기 등이다. 그리고 각 노회에서 상정된 현의안들 중에는 국정교과서에 창조론 교육 촉구, 권사 임직 연령 45세 이하로 하향 조정, 인간복제 금지 및 윤리법 제정 촉구, 정부 우상행사에 기독교인 사 참여금지 등이 있다.

이러한 의제와 현의안들에 대하여 성도들은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선한 결정이 내려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총회기간 중 24일-26일의 새벽예배와 24일 수요일 2부예배는 본당에서 총회총대들과 함께 드리게 되며, 24일 수요일 1부 예배는 11시에 갈릴리홀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만 따로 드리게 된다.



▲ 사진은 지난 1995년 9월 우리 교회에서 모였던 제80회 총회의 모습이다.

찬양대 부대장 / 교회학교 남녀부감 23일 영성훈련 실시 10월 1일엔 구역장 영성훈련

지난 8월 17일 각 남녀전도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성훈련에 이어서, 이번 23일(수) 저녁 7시에는 찬양대 부대장들과 교회학교 남녀부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성훈련이 선교관 501호(국제회의실)에서 있게 된다. 강의를 맡은 김성관 목사는 지난 전도회 영성훈련시에 전했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인간의 방법으로 앞서가지 않는 겸손하고도 확고한 믿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10월 1일(수) 오후 1시에는 구역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성훈련이 본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러한 기회들을 통하여 좀더 가까이에서 담임목사와 교통을 이루고, 충현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자세를 분명하게 다지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회의 이곳 저곳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겸손히 순종하여 나아가는 손길들을 통해 충현교회가 온전한 성전으로 꾸준히 세워져갈 수 있어야 하겠다.

본교단 군목세미나 29일, 우리교회에서

본교단 군목세미나가 9월 29일(월)에 우리교회 국제회의실에서 실시된다. 군목 76명의 부부와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세미나를 위해서 우리교회에서는 2천만원의 예산과 국제회의실을 지원하여 섬기게 된다. 이러한 기회들을 통해서 군목들이 바로서고, 군목 가정들이 새로운 힘을 얻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 군선교에 온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도들은 기도의 지원으로 마음을 모아주겠다. (필의 사진은 지난해 군목세미나의 한 모습이다)



훈련병을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훈련소 진중세례식

5천여명 대상으로 9월 27일 실시

해마다 한차례씩 우리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진중세례식이 이번 9월 27일에도 있게 된다. 논산의 육군 제2훈련소에서 약5천여명의 훈련병을 대상으로 거행될 이번 세례식을 위해서는 본교회 부목사 전원이 내려가 집례하며, 설교는 군전도회 지도인 현상민 목사가, 찬양은 호산나찬양대가 담당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창년선교의 보고로 사용하고 계신 군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젊은 일꾼들이 많이 훈련, 배출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요청된다.

제직회 모입니다

일시 : 1997년 9월 21일(오늘)

저녁 찬양예배 후

장소 : 본당

고등부 학부모 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배다 니홀에서 있습니다.

21세기 교회와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날 학생들을 위한 이 기도회에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김창인 목사의 이사야서 강해 ●

이사야의 소명과 응답

(이사야 6:6-13)

이 사야가 자신의 죄악된 정체를 발견하고 거꾸러져 회개하였다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1. 이사야의 입술을 지저 대언자의 자격을 갖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한 스랍이 와서 숯불을 이사야의 입에 댈 때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스랍아, 저 이사야가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내 앞에서 가슴 아파하다가 거꾸러졌다. 그러니 내가 가서 정결케 해라.”

그래서 스랍이 제단에서 이글이글 핀 숯불 하나를 화제로 집더니 이사야에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이사야의 더러운 입술에 갖다댔다. 그때에 이사야는 자기 입술이 상할 것도 개의치 않고 그저 ‘마땅합니다’ 하며 입술을 내놓습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에 그것이 마땅한 줄 알고 달게 받는 자가 용서를 받습니다.

한 스랍이 이글이글 타는 숯불을 내 입에 대려고 할 때에 ‘아이구, 난 싫어요’ 하며 도망가지 않고 ‘웁습니다. 이놈의 더러운 입술은 숯불로 지저져야 마땅합니다’ 하고 내놓고 징계를 달게 받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태산같이 짓고도 책망을 한 마디만 들으면 ‘내가 언제 그랬어?’ 하며 성령의 불로 지저주시는 은혜를 거절하는 자는 지옥불에 가서 천 년, 만 년 지저지는 고생을 당해야 될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잘못했으면 순순히 매를 맞을 줄 알아야 사는 길 이 열립니다.

천사가 이사야의 입술에 이글이글 타는 숯불을 댔는데 이상합니다. 이사야의 입술이 쟁그리 타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먼저 ‘네 악이 제거되었다’ 악한 쓰레기가 청소되었습니다. 또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가 깨끗하게 사하여졌습니다.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고 거짓말 뒤에 숨겨 두면 그 죄를 반드시 천 사람, 만 사람 앞에 드러내어 망신을 시키고 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천 사람, 만 사람 앞에서 망신하면서 매맞지 말고 미리 회개하여 용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스랍이 날아와 입술에 숯불을 댈 때에 이사야는 입술이 데일 것이 두려워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엎드려서 ‘웁습니다’ 하며 웅얼웅얼합니다. 그런데 입술이 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령한 면에서 더러운 악이 없어졌고 죄의 책임이 면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새 입술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깨달아 슬퍼하고 미워하며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으려는 자에게는 책망도 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대언자의 자격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2.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에 대한 형벌을 달게 받으려고 나설 때에 죄를 용서받아야 비로소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됩니다.

이사야가 새사람이 되고 보니 신령한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8절)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시는 음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내가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가면 고생을 할 것이니 그만둘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스랍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는 것을 본 이사야는 자신도 당장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8절)

다시 말해 자발적인 헌신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천 번, 만 번 멸망을 받았어야 할 내가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제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욕심을 떠나 깨끗한 마음으로 몸과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다가 죽기로 결심하고 “나를 보내소서”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3. 사명을 받은 이사야에게 전해야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1) 유다가 망한다는 선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사명의 길에 나설 때에 하나님은 그가 전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10절)

기가 막히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해라’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을 선언하라고 하였습니다. 전도자가 제일 하기 힘든 것이 바로 이러한 저주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너는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망할 것이라”고 저주를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어느 정도로 망한다는 것입니까?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오히려 남아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았어야 할 내가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 영생복락을 누리게 됐으니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욕심을 떠나 깨끗한 마음으로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다가 죽기로 결심하고 “나를 보내소서”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13절)

십분의 일이 남아도 그것까지 망하겠다고 하니 전멸입니다. 이런 저주의 말씀은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입니다. 전도자가 이런 말을 전하고 나면 신변에는 위험이 따르고 그 마음은 한없이 괴롭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이사야는 자기 백성이 망할까 염려하여 성전에 들어가 울기까지 했는데 이제 ‘이 백성은 십분의 일도 남지 않고 모두 망한다’는 선언을 해야 하니 그의 마음이 대단히 아팠습니다. 이 저주의 말씀을 듣는 백성은 당장 이사야 선지자에게 폭행을 가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어려운 사명을 받고 유다 족속에게로 나가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을 다스리실 때에 세 단계로 하십니다. 첫째는 사랑으로 권면하십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두번째는 때리십니다. 그래도 회개할 회개가 없을 때에는 마지막으로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람이 악해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야, 왜 그랬니?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해야 복받지” 하시며 위로와 권면을 주시고, 그래도 계속하여 잘못을 저지르면 때려서라도 잘못된 길을 떠나게 하시고, 때려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멸망을 선언해 버리십니다. 이렇게 되면 뼈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회개하지 않는 유다의 멸망을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이 멸망을 선언받으면 유다 족속은 끝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멸망의 선언이 떨어지기 전에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하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읍은 황폐하고 화려하던 집들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병이 나서 죽고 굶어 죽

고 전쟁으로 죽게 되니까 굉장히 잘 지은 집에는 살 사람이 없어서 텅텅 비어 쓸데없어집니다. 이렇게 되어 마지막에는 전인구의 십분의 일 정도로 남은 자까지 망하게 됩니다.

(2) 그루터기인 거룩한 씨가 남아 있을 것이라는 선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아 있는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라고 하였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거룩한 씨란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성령으로 증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도장을 찍어 놓은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홍수 심판에 죽어도 노아의 열 식구는 하나님이 간수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간수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의 모든 만자들이 죽어도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의 집에는 개 한 마리도 죽지 않고 그 죽음의 밤을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피에 젖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젖으면 천사는 나를 지켜 주고 악마는 손을 대지 못하고 도망을 갈 것입니다. 그러니 지구가 불타 없어져도 속함을 받은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웃시야 왕이 죽은 후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낙심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소명을 받고 “나를 보내소서”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결단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여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은 거룩한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일하다가 천국에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

● Next Sunday's Message By Rev. Kim, Sung Kwan ●

● 김성관 목사의 다음 주일 설교 ●

IS THE LORD'S ARM TOO SHORT?

(Numbers 11:21-23)

“Here I am among six hundred thousand men on foot ...” Moses was a true servant of God. His job was to lead the Israelites out of Egypt and to the promised land. God performed many miracles through Moses so that Moses could fulfill his duty. He had the privilege of talking with God face to face. He had a lot of experience working with God. Moses was the leader of over three million people. His responsibilities were awesome! Constantly, the people complained to him with various problems. Over and over again, Moses prayed to God for answers to their dilemmas, and over and over again, God answered them. Even so, during his journey in the desert, Moses' faith weakened and he questioned the Lord's power (Numbers 11:21-22).



Moses was tired. He was overburdened and frustrated. His people were always unsatisfied. Their faith was like the wind, continually changing from day to day. When they were hungry, God provided manna. But after a time, when this became unsatisfactory, they cried for meat. God heard their cries and told Moses to tell them that they would have meat for a month and that He would pour His spirit over the elders to assist Moses. Moses asked God, “Would they have enough if flocks and herds were slaughtered for them?” (Numbers 11:22) Moses was saying to God that he didn't think anything could resolve the situation. The Israelites would always continue to complain. If it wasn't one problem, then it would surely be another one. He thought it was hopeless. Moses began to lose faith in God's ability to control His people.

The Lord answered Moses, “Is the Lord's arm too short? You will now see whether or not what I say will come true for you.” (Numbers 11:23) In Hebrew, the word yad means God's strength and the word quasar means to cut-off. Through interpretation, yad stands for arm and quasar for short. In other words, God was saying to Moses, “Do you think my strength is cut-off?” or “Do you think my power is insufficient?”

The phrase “Is the Lord's arm too short?” is mentioned also in Isaiah 50:2 and 59:1. It has the same meaning and reference as Numbers 11:23. When people are doubtful and tired, they have a tendency to question the Lord's strength and power.

No one can come close to Moses' leadership capabilities. He led over three million people out of Egypt and into the desert for many a year. It is difficult to fathom and grasp the significant situation he was in. In our lives, we have our own dilemmas and particular situations to deal with. There are times when we become tired, frustrated, and believe we

여호와와 손이 짧아졌느냐

(민수기 11:21-23)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육십 만 명이온데 ...” 모세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의 의무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일하는 경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모세는 삼백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지도자였고 그의 책임은 놀랄 정도로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그에게 불평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그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생활하던 가운데 모세의 믿음은 연약하여졌고 그는 주님의 능력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었습니다(민 11:21-22).

모세는 지쳐 있었고 과중한 책임으로 말미암아 좌절하였습니다. 백성들은 항상 불만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마치 날마다 변하는 바람 같았습니다. 그들이 배고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만나가 지겨워지자 그들은 고기를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이 한달 동안 고기를 먹을 것이며, 모세를 돕기 위하여 장로들에게 그의 신을 부어 주시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민 11:22) 라며 질문하였습니다. 모세는 어떠한 것도 그 상황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하여 불평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면 또다른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모세는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믿음을 잃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와와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민 11:23) 고 대답하셨습니다. 히브리어에 “야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며 “콰사”라는 말은 잘라버린다는 말입니다. 해석하여 볼 때, 야드는 손으로 해석되고 콰사는 짧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나의 힘이 끊겼다고 생각하느냐” 또는 “너는 나의 능력이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느냐”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손이 짧아졌느냐”는 표현은 이사야 50장 2절과 59장 1절에도 사용되는데 이는 민수기 11장 23절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삶에 지쳐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권능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곤 합니다.

모세의 지도 능력에 견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삼백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었습니다. 그토록 특별하게 고달픈 상황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 스스로가 다루어야 하는 특정한 어려움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치고, 짜증나며, 너무 과도한 책임을 맡았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과 주님 없이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이 잘 안된다

are overburdened. We must remember and keep in mind that God's power is omnipotent; and without Him we are totally impotent. So, when things seem down and out, we need to strengthen our faith and put all our problems in His hands.

Just as God told Moses, "You will now see whether or not what I say will come true for you." (Numbers 11:23) God's word always stands, even with the passing of time. It never fails. It is the true test of His power.

Paul mentions to us, "Therefore judge nothing before the appointed time; wait till the Lord comes. He will bring to light what is hidden in darkness and will expose the motives of men's hearts. At that time each will receive his praise from God." (1 Corinthians 4:5) As Moses analyzed the situation, he not only lost sight of God's power, but he also showed his lack of faith. We need to take note and remember: judge nothing -- let go and let God be the judge.

To practice letting go and letting God take over requires faith. "But my righteous one will live by faith. And if he shrinks back, I will not be pleased with him." (Hebrews 10:38) We must live by faith. When we don't, God is not happy. In times of strife, we need to ask Jesus for help and have faith.

By overcoming our difficulties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we are promised eternal life. "Then I saw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for the first heaven and the first earth had passed away, and there was no longer any sea." (Revelation 21:1) You and I belong to this new place; it will be our eternal home. "He who testifies to these things says, 'Yes, I am coming soon.' Amen.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

By faith, God's arm is never too short. Through faith, His arm is never cut-off from us. Is the Lord's arm too short? No, it extends far beyond our needs. Therefore, we need confess to Jesus that when He reaches out to us, His arm is more than long enough to meet our needs!

고 생각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며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그분의 손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옹하는 여부를 보리라"(민 11:23)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흘러도 항상 불변하며 실패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권능에 대한 진정한 시금석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전 4:5)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상황을 분석하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망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믿음도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하십시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하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히 10:38).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도와 주실 것을 요청하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역경을 이겨 나가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계 21:1).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될 이 놀라운 새로운 곳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

여호와와 그의 손은 믿는 자에게 결코 짧아지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분의 손은 결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손이 너무 짧아졌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와와 그의 손은 항상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주님의 손이 결코 짧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께 고백하여야 합니다.

Dear Rev. Lee:

I am thankful for the chance to visit and attend your worship services during my trip to Korea in the early part of August.

I was most deeply impressed by your genuine dedication and devotion for your church and your determination to teach the enlightened way of life. For my sitting in your magnificent church facilities in the middle of downtown Seoul a few thousand miles away from my home in Washington was a memorable experience, let alone, attending an English service in Seoul. Some day, I want to bring my family to your church and have them experience the same warmth and spiritual presence which I felt so strongly at your respected church.

Pastor Lee, although of course I spend majority of my time here in Washington D. C. I visit Seoul many times a year. Each time I visit your church, I hope to attend your worship service.

If there is anything I can be of

총현교회에서 받은 감명

이 글은 지난 8월 영어예배와 3부예배에 참석한
미국인 변호사 테라스씨의 기고입니다.

service to you, please do not hesitate to let me know. As an international lawyer, there may be some things on which I can be of help to you or your parishioners. To help you better understand, I have many years of experience in helping people establish their business in the U.S. and assisting families to educate their sons and daughters in the U.S.

I plan to visit Seoul again in October of this year.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Very truly yours,
Christopher A. Teras
Attorney at Law.

목사님께:

지난 8월 초 제가 한국에 방문하였을 때에 총현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목사님들의 진실한 헌신과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들을 보며 매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의 집인 미국의 워싱턴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서울에 있는 동안 영어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과 아울러 웅장한 총현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제게는 매우 인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저의 가족들을 데리고 총현교회를 방문해서 그토록 강하게 체험하였던

총현의 영적인 열기와 은혜를 저의 가족들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물론 연중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 워싱턴 DC에서 보냅니다. 그러나 일년에 몇 차례씩은 서울을 방문하게 됩니다. 교회에 갈 수 있을 때마다 저는 총현교회 예배에 참석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제게 무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변호사로서 제가 목사님께나 또는 성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미국에 취업하려는 분들이나 유학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10월경 서울을 다시 방문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곧 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크리스토퍼 테라스 올림

※ 안수집사 여름수련회에 참석하고 ※

세상을 향해 보낸 받은 그리스도인

박철구
(집사, 중등2부 부감)

안수집사회는 영성훈련의 일환으로 해마다 여름 수련회를 개최하고 있다. 금년은 '세상을 향해 보낸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충북 괴산군 고사리의 이화여대 수련장에서 장충교회 남창우 목사님을 모시고 안수집사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스럽게 마쳤다.

8월 26일 새벽기도회를 마친 후 교회 설령당으로 아침을 먹고 2대의 버스에 편승하여 수련회장으로 출발하였다. 평일이라 도로 사정이 원활하여 순조롭게 목적지를 향해 달렸다. 들뜬 오곡백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알이 익어가고, 도시에서 맛보지 못한 시원한 공기가 가슴을 확 트이게 하고, 충주호의 맑은 물 위로 유람선이 한가롭게 다니는 차창 밖의 풍요로운 자연에 푹 빠져 목 적지에 도착했다.

개회예배는 조운재 목사님의 '뜨거운 여름'이라는 제목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계절, 일하고 활동하는 계절, 태양의 계절에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

첫날 오후 첫번째 순서는 남창우 목사님의 '평신도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특강으로 평신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두번째 순서는 공동체 훈련으로 여러 가지 순서를 진행하며 서로의 마음을 활짝 열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저녁 부흥회는 '내일 염려 내일 하라'는 제목으로 비생산적이고 비신앙적인 염려를 버리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의 우선 순위를 확실히 하여 오늘의 염려는 오늘에 족하고 모든 문제는 기도의 열쇠로 풀자라는 말씀을 들은 후 특별 기도 순서로 국가와 민족, 교회와 직장,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 밤시간에는 믿음, 소망, 사랑, 충성의 팀으로 모여 자기 소개

를 하며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다.

둘째날은 '아침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시편 3편 1-8절의 말씀을 다윗 왕의 배반의 아픔과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신앙을 배우자 하시면서 지나온 어려운 시기를 기적적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남 목사님의 간증으로 들으며 은혜를 받았다. 또한 특강 '훈련 목회로 교회를 살리라'는 제목으로 제자훈련으로 교회 갱신에 앞장서서 다원화된 교회, 정보화 시대에 맞는 교회로 만들자라는 말씀으로 실력있는 제자, 살아 움직이는 제자가 되라고 강조하셨다. 오후의 공동체 훈련으로 웃음꽃을 피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니 심신이 새로운 힘을 얻었다. 저녁 시간에는 '무엇을 쟁하며 살까?'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24장 1-9절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신경을 쓰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으로 전적으로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는 자세를 가지자'라고 말씀해 주셨다. 설교 후에는 은혜스러운 신앙 간증과 결심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밤의 특별기도회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후 개인적으로 산이나 강당에 남아서 철야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셋째날의 새벽기도회는 시107편 23-32절의 말씀으로 '바다에 항해하는 배와 같은 인생 항로를 광풍과 순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배웠다. 아침 식사 후 등산을 했다. 너무나 조용한 산 속을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에 찬양하며 서로 밀어주고 당겨 주면서 신선대바위에 도착하여 산상기도회를 가졌다. 하산 후 폐회예배를 드린 후 2박3일간의 정들었던 수련관을 떠나며 언젠가는 한번 더 와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다.

(▶ 사진은 안수집사 수련회의 한 모습)

※ 나의 주 나의 하나님 ※

어둠을 뚫고 새벽을 깨우는 마리아들

금옥연
(집사, 마리아전도회7지회장)

새벽 4시 10분. 집을 출발하여 아파트를 돌며 권사님, 집사님을 모시고 교회로 가면 반가운 얼굴들을 만난다.

"할렐루야"

마리아들의 새벽 인사이다.

새벽기도회때마다 본당이 많은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볼 때, 충현교회가 살고, 이 나라의 교회들이 살고, 나라가 살겠구나 하는 소망을 갖게 된다. 이런 저런 말할 수 없는 많은 변명에 사로잡혀 나올 수 없는 형편이지만 주님께서 살려 주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매일매일 이적을 경험하면서 승리하여 나간다.

여름철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곤한 남편이 깽깽봐 불도 켜지 못하고 살곰 살곰 세수하고 더듬어 신발을 찾아 신고 나오는 집사님, 3살박이 승현이의 손을 잡고 임신 8개월의 배를 움켜쥐고 나오는 분, 2년7개월 된 태원이가 울면 기도로 우유를 물려놓고 나오는 분, 주님의 일과 새벽기도를 드리기 위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열심히 기도생활하는 집사님 등등. 이렇게 마리아전도회

7지회에는 새벽을 깨우는 일곱 분의 기도의 용사들이 있다.

여호와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 주시고 예수님과 만남을 연결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매시간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늘 은혜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벽기도회때마다 인도하시는 찬송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은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감격임을 고백한다. 나그네 인생인 우리는 예수님의 피 뿌림 없이는 산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은 마리아들은 새벽마다 기도한다.

"이 말씀을 전 교인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이 기쁜 감격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소서."

찬송 안으로 들어가, 말씀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 마리아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오늘도 어둠 속을 뚫고 새벽을 달린다.



전도의 사명

그 열매는 하늘 나라의 상급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시(證視)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곧 전도의 사명이다. 전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서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들과 같이 경배하는 섬김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 함께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우리를 동참케 해주시는 크신 은혜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위에 온전하게 선포해야 하겠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는 주님의 지상명령이 있는데 우리가 자진하여 이 일을 안하면 어떻게 될까. 궁극적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일을 이루시고야 마신다. 지금까지 이러한 말씀의 중요성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전도를 열심으로 했지만 전도의 참 열매가 없어 열정이 식어지고 스스로 단념해 버리지는 않았던가? 전도는 특별한 은사를 받거나 특별 훈련을 받은 사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던가?

최근 한국 교회는 성도의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전도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성도가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게 되면 자연 자신의 영성이 깨어나게 되고 자신이 먼저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이 되며 신앙 생활에 활력을 찾게 된다.

자신이 받은 구원과 깨달음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전도에 기도가 빠지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게 되어 서로 다투고 경쟁하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간구가 사라지게 될 수 있다. 전도를 한 후 열매

없는 사람을 비하하거나 자기만이 하나님 앞에 많이 쓰이는 실력있는 사람이라는 오해로 인하여 전도를 하고도 감사가 없어지게 된다.

전도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가

첫째, 전도는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사에 우리를 쓰시는 것이며 그 자체가 은혜가 됨을 깨달아야 한다.

둘째, 건강한 산모(전도자)라야 건강한 아이(태신자)를 잉태하듯이, 육신을 좇는 세상적인 분주함, 이기주의, 쾌락, 물질만능주의 등을 벗어나고 복음에 빛진 자로서 거듭나야 한다.

셋째, 전도를 했다 하더라도 육적인 자녀를 위하여 기울이는 노력과 같이 태신자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 한다.

지금까지 전도를 하면서 큰 기쁨이 없는 이유는 전도를 자신 주변의 친지, 이웃을 교회에 한두번 출석시켜 등록케 하는 것으로 축소시킨 데 있다고 본다. 생명이란 출산했다 하여 자연스럽게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육적 자녀를 생각해 볼 때 출산 이후 성장을 위하여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는가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

다. 우리는 한밤 중에 아이가 울면 즉시 일어나 아이의 불편을 해결해 주지만, 영적인 아이에게는 한두번 교회의 위치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 주고는 그들의 영적 성장을 스스로에게 내맡겨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부터는 좀더 진보적이고 효과적인 전도 사명을 감당하면서 한 생명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교회에 출석시키면서 6주에서 8주에 이르도록 출석을 점검하고 신앙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어야 한다. 이 기간 중에는 교회의 어떤 봉사보다도 우선 순위를 두고 최선을 다하여 진실하게 사랑을 쏟아야 한다. 형식은 절대 통하지 않으며 전도자 자신이 최상급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에 감격할 정도로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온마음을 다한 전도라야 전도의 참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전도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며, 그 열매는 하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인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전도에 대한 격려를 위해 전도위원회에서는 11월말 전도시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전도에 더욱 열심을 내는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전도위원회 제공〉

취재수첩

오늘 수화교실 개강

에바다부에서는 농아인 선교를 위하여 사랑의 수화교실을 오는 9월 21일 개강하여 약 3개월간 교육을 실시한다. 이미 수차례 실시되어온 이 수화교실을 통해 수화 교육을 받은 성도들 중 대부분은 현재 에바다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복음을 듣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농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강좌에 참석하여 장애인 복음화에 동참한다면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심정을 소유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과정:

- 주일반: 오후 3시 - 4시 30분
- 수요반: 오후 1시 - 2시 30분
- 교육 기간: 9월 21일-12월 21일
- 교육 장소: 교육관 109호
- 등록금: 1만원
- 신청: 에바다부 교사실

교도소에

성경, 찬송가를 보냅니다

교정전도회에서는 교도소 전도를

위하여 성경과 찬송가를 각 교도소에 기증하기로 하고 성도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까지도 성도들이 기증하면 전달한 성경과 찬송가는 160여권이며, 앞으로도 성도들이 기증하는 대로 계속해서 전달 할 예정이다. 재소자들이 신앙 생활을 통해 영적으로 변화되어, 출감 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길잡이가 될 성경과 찬송가를 보내는 일에 많은 성도들의 참여가 있어야겠다. 기증하는 성경과 찬송가의 접수는 본당 지하 갈릴리움 뒷편에 위치한 교정전도회 사무실에서 받고 있다.

이곳에서는

▶ 소년부, 새가족부에서는 오늘 성경암송대회를 실시한다. 또한 장년2부와 소망부에서는 다음주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장년2부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을, 소망부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 4-13

직원(비서)모집

1. 자격

- 1) 세례를 받은 기혼여성
- 2) 정규대학 졸업자
- 3) 영어 해독이 가능한 자
- 4) PC 사용이 가능한 자

2. 근무직

당회장 비서직 0명

3. 제출서류

자필이력서(사진 포함)
주민등록등본
타교인은 당회장 추천서
(기타 서류는 채용후 제출)

4. 제출처

충현교회 사무국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교환 402)

사진 찍으세요

• 찍는 곳

홍보실(선교관 408호)

• 찍는 때

주일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수요일 낮 12시 30분~오후 7시
금요일 오후 6시~7시 30분

• 찍는 교구

1997년 9월 21일 : 10교구
1997년 9월 28일 : 11교구

• 찍을 사람

원로, 은퇴, 시무장로 / 교역자 /
안수집사 / 원로, 은퇴, 시무권사 /
남녀 서리집사

충현게시판

젊은이를 위한 5부예배,
찬양대와 안내위원을 모집합니다 지휘자, 반주자도 모집합니다
10월 26일까지!

5부 예배를 위해 섬길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대학, 청년부 연령에 있는 지체들 중 찬양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다만, 지원자격은 우리 교회 찬양대 규정에 따라 세례교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바로 오늘부터 다음달 26일까지입니다. 지휘자와 반주자도 전공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찬양위원회 지도 박경환 목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청년 찬양대가 구성되면 곧바로 11월 2일 5부예배부터 섬기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안내위원(남)으로 봉사하실 분들도 같은 기간 안에 꾸준히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과 온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가족들을 잘 안내해 주세요.

지난 주부터 예배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시간 중 광고와 새가족 환영, 교제의 시간을 안하기로 한 것이지요. 이에 따라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들 모두가 잘 보살피 도와드리지 않으면 당황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새가족을 인도해 오신 분들은 이들이 교회에 편안한 맘으로 잘 정착해 갈 수 있도록 친히 새가족부로 인도해 주시기를, 또 되도록 교회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새가족부'는 본당1층 로비 오른쪽에 있습니다.

절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 영아부와 유아부에서는 찬송가 부르기대회를 실시한다.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어린 영혼들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찬양이 기대된다. 영아부에서는 오늘, 유아부에서는 다음주일에 실시한다.

▶ 중등3부에서는 오늘 교육관 503호에서 교사세미나를 실시한다.

▶ 장년1부에서는 다음주일(28일) 성경퀴즈대회를 실시한다. 범위는 사도행전 전장이다.

▶ 에바다부에서는 오늘 9월 21일 학습평가를 실시한다.

▶ 선교연구원 교육 장소가 베다니홀에서 선교관 5층 국제회의실로 변경되었다.

(글/박주영 기자 사진/이문구 기자)

‘평화의 기도’ 가사 고쳐 부릅시다

찬양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자주 부르며 좋아하는 프랜시스의 ‘평화의 기도’ 가사 내용 중 우리의 신앙과 맞지 않는 일부 가사를 수정하여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종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의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수정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의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주는 것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부서 탐방 / 경찰전도회

시민의 지팡이, 하나님나라의 파수꾼을 위하여

- 시작은 미약하나 경찰의 복음화 꿈꿔 -

경찰전도회는 경찰관들을 복음으로 무장시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정의사회 구현과 희생적 봉사를 실천하는 선량한 민주 경찰상을 정립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복된 말씀을 땅 끝까지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1997년 2월 14일 조직되었다. 따라서 이 전도회는 경찰청 산하의 경찰관 및 기동대, 전·의경 특공대를 대상으로 활동한다.

경찰전도회는 고문에 김은호 장로, 회장 이갑재 장로, 지도 김희수 목사, 6명의 부회장과 총무, 서기, 회계, 그리고 전교부, 봉사부, 예전부, 구제부, 교육부, 홍보부, 찬양부의 부장과 차장으로 되어 있다.

지난 7개월여 동안의 활동을 살펴보면 부활절 같은 기념 절기나 기념일에 경찰청교회를 찾아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지원해 주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경찰청교회 부활절 축하예배, 충주 중앙경찰학교 자경대(전·의경) 위문예배를 지원했으며 지난 8월 22일에는 서울 제4기동대에서 경찰 선교의 밤을 개최하였다. 이 선교의 밤에는 대학부 사십나 찬양팀과 경찰전도회원들로 구성된 여성중창단이 특별 찬양을 하고 김필수 목사가 말씀을 전하여 참석한 경찰관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였다. 또한 티셔츠와 간식을 선물로 준비해 가서 반응도 좋았다고 한다.

앞으로는 전도회 회원들을 250명으로 증원하여 단순히 예배를 지원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이고 힘있는 전도 사역들을 담당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과 의무 복무 중인 직할 부대원들을 경복실과 협력하여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수고를 위로할 예정이다. 또 각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 유치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범 청소년들의 선도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그리고 현장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전도지를 전달하며 국립경찰병원의 입원 환자와 직원 전도에도 힘을 기울인다. 이러한 실질적인 사업들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신앙 성장과 전교를 위한 수련회나 기타 행사들도 마련되어 있다.

경찰전도회원들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결산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이들이 경찰청교회와 연결되어 일선 경찰의 복음 전도 사역자로, 하나님나라의 파수꾼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라고 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시작 단계에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참여로 많은 경찰관, 전·의경이 복음으로 무장되기를 기대한다.

(글/박주영 기자, 사진/경찰전도회 제공)